

<붙임>

## 신흥아시아의 부상과 세계 경제 회복 (Emerging Asia & Global Economic Recovery)

①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 해결에 글로벌 금융자원을 집중 투입

-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실물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

⇒ 위기 극복 및 예방의 일환으로 바젤Ⅲ 등 금융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이라는 점에서 그 중심으로 부상한 아시아 신흥국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

② 아시아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

- 1990년대말 외환위기로 일시 주춤하였으나 아시아 경제의 GDP, 무역 규모, 외환보유액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

---

▪ 세계경제내 아시아 비중 (% 명목GDP 기준)	: 1960년 12.5 → 1980년 19.8 → 2011년 27.4
▪ 무역규모 (세계순위, 2010년 기준)	: 중국(2) 일본(4) 한국(9) 홍콩(10) 싱가포르(13)
▪ 외환보유액 (세계순위, 2011년 기준)	: 중국(1) 일본(2) 대만(4) 한국(7) 인도(8)

---

- 특히 아시아 신흥국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, 양질의 저임 노동력,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·기술 도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

→ 이에 따라 몇몇 아시아 신흥국들은 예전의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음

- 한국의 경우 1950년대 원조수혜국에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에 가입하며 원조공여국으로 변모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

③ 그동안 국제사회는 실물-금융간 연계(macro-financial linkages)에 있어서 실물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보다 금융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안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음

- 그 결과 글로벌 금융자원이 그리스 등 유로지역 과다채무국(heavily indebted countries)으로 집중 투입되었으며 성장,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소 배분

- 그렇지만 모든 금융위기의 기저에는 취약한 실물경제가 존재했음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자금투입에 의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실물부문의 성장 유지가 중요

-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유로지역 재정위기도 유럽 각국이 성장세 회복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때에 진정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임

- 한편 미국·유럽지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선진국의 정책이 금융·실물경로를 통해 신흥국에게 부정적인 영향(negative spillover effect)을 미치고 있음

-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로 신흥국의 수출 모멘텀이 약화

-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, 투자 등이 위축

- 이 밖에도 위기극복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으로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의 금융·외환시장 및 국제상품시장 등에 유입되면서 신흥국의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

④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경제의 역할이 긴요하며 글로벌 금융자원이 인프라(infrastructure) 구축 등 자본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유입될 필요

-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데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여력이 있음

○ 또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수출지향 전략 등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점차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에도 역내교역이 증가세를 지속

– 신흥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일본·한국 등의 직접투자 확대도 역내교역 증가 요인으로 작용

○ 한편 중국,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도시화·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수요가 많으며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증가율\*도 높은 수준

\* 2000~08년중 한국(3.1%), 인도(4.1%), 중국(9.4%) 등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(1.6%)을 크게 상회

→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글로벌 금융자원이 유입되어 지속성장을 이끌어 나갈 필요

⑤ 한국 경제는 여타 아시아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중심의 성장에 힘입어 발전해 왔으며 위기시에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

○ 특히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,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호주의 도입 등 자유화의 후퇴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로 평가

– 외환위기시에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,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재정지출 확대,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위기를 극복

→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 방지,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등을 위해 공유되기를 희망

⑥ 그동안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외교역 증대에 힘입은 바 크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발효된 한미 FTA도 한·미 양국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

○ 한미 FTA의 경우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對미 수출 모멘텀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

- 또한 비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술력 및 품질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
-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FDI 확대 등으로 금융, 법률, 회계, 컨설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등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

○ 미국의 입장에서 NAFTA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과의 FTA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
- 먼저 한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업 등 비교우위 업종을 중심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임

▪ 생산 측면에서도 고품질의 한국산 부품·소재 등을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신규 공급선 확보가 가능

- 또한 한국은 세계 경제의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교역규모\*가 큰 데다 한·중·일 FTA 체결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미국 및 유럽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

\* 2011년중 교역규모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1위, 한국은 중국의 교역대상국 중 미국, 일본에 이어 3위

→ 수출 및 FDI 증대,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·미 양국의 성장, 고용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

○ 또한 양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 확대로 후생이 증대되고, 안보 측면에서도 동반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판단

○ 다만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비교열위 업종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배려와 함께 체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

7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

-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하에서도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3%대 중반 수준의 성장을 보일 전망
    - 다만 성장경로에 있어서는 유가상승 압력, 유로지역 재정위기 전염 가능성 등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안할 때 당분간 하방리스크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평가
  -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,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거의 양적인 요소투입주도형 성장에서 질적인 생산성주도형 성장으로의 이행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
- 저출산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제한적이므로 노동투입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주어진 노동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보다 유효
    -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, 연구개발 및 혁신기술 투자를 통한 요소투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유도

⑧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이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지속성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님

- 아시아 발전모델은 높은 해외수요 및 생산요소 의존도, 선진기술 모방, 미흡한 금융시장 발달 등의 제약요인도 상존하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
  -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미국, 유럽 등 주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들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높은 대외의존도에 기인하는 만큼 국내수요 활성화에 기초한 성장을 모색할 필요
  - 또한 생산측면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,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,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노력

㉑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뉴욕에서 시작되어 유럽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위기가 아시아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

○ 이를 위해서는

- 첫째,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global jurisdiction을 가진 기구가 없으므로 각국의 정책공조(policy coordination)를 강화할 필요
- 둘째,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지적 균형(local equilibrium) 노력보다는 G20회의와 같은 범세계적 모임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균형(global equilibrium)을 통한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도모
-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자원이 아시아 신흥국의 사회기반시설(social infrastructure) 구축 등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정책수단 개발과 금융제도 개혁이 요구